

# 건축실무의 역사(4)

The History of Practical Architecture Business (4)

—해방에서 한국전쟁—

宋 律/ 공학박사, 종합건축사사무소 아키반

by Song, Yul

40년대 한국건축에 관심을 가진 필자에게 어느날 가까운 동료 중 하나가 "뭐 볼 것이 있다고..."라며 비아냥 거린 적이 있다. 인식론적인 기반부터 문제삼고 싶었다. 사과 한 알이 뭐 볼 것이 있겠는가만 100년된 사과라면 어떠할까? 혹은 달에 가져갔던 사과라면 어떨까? 추수감사절 제단에 정갈하게 놓인 사과 한 알은 또 볼 것이 없을것인가?

건축을 역사적으로 정리하고자 할 경우 우선 "볼 것"을 전제로 출발하는 경향이 있다. 건물과 구별될 수 있는 이념이나 작품성이 있어야 과거사에서 끄집어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필자가 애써 건축실무의 역사라고 연재를 시작할 이면에는 건축에 있어서 볼 것 보다 볼 것을 만들어내기 위한 주변정황이나 하부구조도 중요하며 때로는 건축의 많은 부분이 그러한 배경에 따라 달리보일 수 있다는 신념이 있었기 때문이다. 더욱 나아가 우리는 우리의 건축을 목적의식적으로 바라 볼 필요가

있다. 동료의 생각처럼 해방에서 한국전쟁사이 우리의 건축에는 서양의 그것과 비교하여 너무도 볼 것이 없다. 그래서 너무도 쉽게 우리는 선배건축가들에 향한 존경심을 포기하는 지 모른다. 이 시기 볼 것 없는 건축역사를 되새기는 것은 시대를 앞선 뛰어난 건축물들을 전시하는 작업일 수 없고 오히려 변명거리를 마련하는 것과 같은 구차한 작업처럼 여겨질 수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작업이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은 우리의 건축을 우리의 맥락이 아니라 서양의 화려한 맥락에 가져다 놓고 스스로 비하시키고 그것이 마치 지적 우월의 징표 내세우기 처럼 되어버린 버릇에 반항하고 싶은 나름의 목적의식이 있기 때문이다. 건축에 대한 명예와 책임이 건축가만의 것이 아니라 건축주와 그리고 사회, 문화, 경제 등 총체적인 것의 몫이라면 어떠한 맥락에 가져다 놓아도 존경받을 만한 건축이 없음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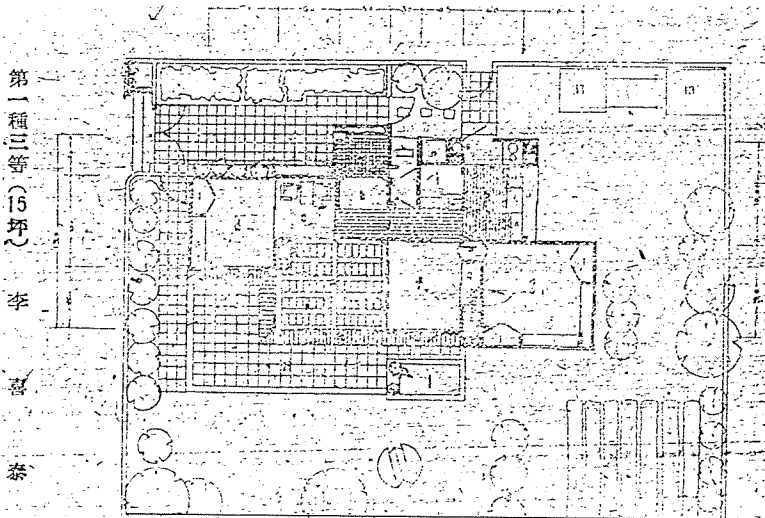
대한 질책 또한 건축가에게만 돌려져서는 안된다. 훌륭한 건축만들기의 노력은 건축가 개인의 수련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건축화과정에 연루된 제반 조건들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과 병행되어야한다. 우리에게는 가우디같은 건축가가 없었지만 가우디를 있게한 규엘 백작 같은 사람도 없었다.

사회가 건축가를 존경하지 않으면 존경받을 만한 건축가가 나타나기란 신화만들기와 같을 것이다. 회화에 문외한인 필자가 미술가를 존경하는 것은 미술평론가와 미술가들이 서로를 존경하기 때문이다. 건축가가 사회에서 존경받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치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선배건축가들을 존경하고 동료건축가를 존경하는 것은 곧 사회가 건축가를 존경하게 하는 것과 동일한 일일 것이다.

해방에서 전쟁으로 이어지는 사이의 기간은 이념적인 갈등 이외에도 건축에 있어서 매우 어려운 시기였다. 이를 아는 것만으로도 선배건축가들에게 향한 존경심을 쉽게 거둘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의 몫은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오늘의 우리를 있게한 선배건축가들을 존경하는 일이다.

## 1. 건설경기

해방이후 6.25전쟁후 복구작업이 시작되기 전의 기간동안에 신축되는 건물은 매우 적은 숫자였으며 그나마 미군관련공사가 대부분이었다. 해방 이후 경제 전반이 크게 위축되었는데 이는 해방으로 인한 것이라기 보다는 일제 말 일본인들이 전쟁에 치중하면서 꺾폐되기 시작한 경제상황의



(그림 1) 국민주택 1종 3등 당선안(이희태)

연속이었다.」(표1)

미군정의 시작과 함께 건설업체는 난립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경기가 좋아진 이유보다는 미군정과 관련한 특수였다.

표2를 다시 부문간의 비율로 나타내면 표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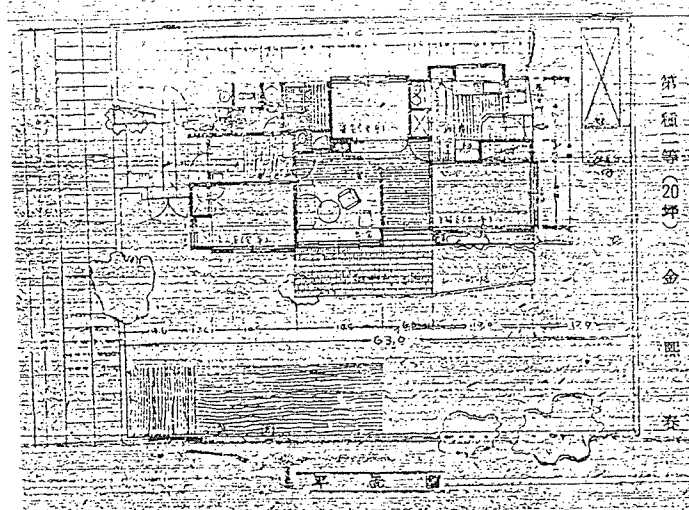
해방 직후 신설된 건설업체는 다른 부문에 비해서 그 수가 월등히 많다는 것과 또 하나는 자본비율로 볼 경우 다른 부문에 비하여 영세하다는 점이 두드러 진다. 이는 건설업이라는 것이 적은 자본으로도 가능한 것이며 또한 전문지식이나 기술 없이도 쉽게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도 있을 것이다.

게다가 안정된 댓가를 지불하는 미군관련공사의 폭등은 건설업체의 신설을 부추겼다. 다음의 자료는 미군관련 공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 지를 보여준다.

표4는 해방 직후 조직된 조선토건협회 회원들의 실적 만을 합친 것이다. 조선토건협회가 전체 공사의 2/3정도는 담당했으리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미군측에서 양호한 시공업체를 미군시설 건축에 활용하기 위해 조선토건협회에 업체 선정을 의뢰했기 때문이다.

해방이후 6.25 전까지의 건축공사는 미군관련공사와 더불어 몇 단계로 나뉘어 이야기 될 수 있다. 우선 해방에서 미군 주둔공사가 일어나기 전 그러니까 45년 11월까지의 별다른 공사가 진척된 것이 없었다. 그러다가 45년 11월 미군주둔공사가 진척되면서 건축공사는 일대 폭등의 현상을 나타내게 된다.

2차대전 말기 30년대부터 한국을 병참기지화 했던 일본인들은 한반도에 건축자재를 다량으로 비축하였는데 이 건축자재가 미군정과 더불어 미군에 의해 다량으로 일반에게 방출되어 45년 말에서 46년에 이르는 기간동안에



(그림 2) 국민주택 현상2종 2층 당선안(김희춘)

(표 1) 사업체 및 노무자의 감소상황<sup>2)</sup>

공 업 별	1943. 6		1947. 3		C/A (%)	C/B (%)
	사업체(A)	노무자(B)	사업체(C)	노무자(D)		
금속공업	416	12,578	262	6,118	63	49
기계기구공업	944	27,331	874	10,510	93	75
화학공업	681	22,869	582	21,457	85	94
가스전기수도	70	2,864	32	1,927	46	67
요업 및 토석	1,172	20,161	700	10,686	60	52
방직	1,683	61,210	537	37,353	33	61
제재 및 목제품	1,359	14,589	542	11,315	40	78
식료품	1,704	19,584	643	12,506	38	63
인쇄계본	410	7,370	143	2,655	34	36
토목건설	997	23,680	90	6,279	9	27
기타	619	12,423	95	3,155	15	25
계	10,065	225,393	4,500	133,979	44%	59%

(표 2) 남한 8도시 신설회사수 업종별 연도별 집계<sup>3)</sup>

	1945. 8-12	1946	1947	1948	計
鑛業	-	6	11	14	31
農林業	-	9	20	8	37
水産業	1	11	8	19	39
機械器具工業	4	36	14	19	73
金屬工業	-	-	-	1	1
電氣工業	-	15	11	10	36
化學工業	1	29	31	31	92
鑛業	-	10	13	15	38
製材 및 家具業	-	23	15	16	54
纖維工業	1	26	17	9	53
其他製造工業	1	24	59	48	132
土建業	4	93	81	36	214
印刷 및 出版業	2	22	22	15	61
金融業	-	-	4	33	37
保險業	-	5	4	3	12
運輸業	1	29	29	21	80
倉庫業	1	1	1	-	3
貿易業	3	108	40	47	198
商業 및 其他	8	95	113	47	263
計	27	549	497	395	1463

주)

1) 김기원, 「미군정기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2) 자료 : 조선은행조사부, 『조선경제연보』, 1948. p.1-102.

3) 앞의 인용., 1949, I -150.

(표 3) 8.15후 신설회사 산업별 연도별 집계<sup>4)</sup>

	45.8-12	46	47	48	합 계	불입자본(합계)
제조업	9 (33%)	192 (35.0)	186 (37.4)	167 (42.3)	554 (37.8)	1201 (34.4)
광업	0	6 (1.1)	11 (2.2)	14 (3.5)	31 (2.1)	119 (3.4)
토건업	4 (14.8)	93 (16.9)	81 (16.3)	36 (9.1)	214 (14.6)	346 (9.9)
무역업	3 (11.1)	108 (19.7)	40 (8.0)	47 (11.9)	198 (13.5)	669 (19.1)
상업운수	10 (37.3)	130 (23.7)	151 (30.3)	104 (26.3)	395 (26.9)	885 (25.3)
농림수산	1 (3.7)	20 (3.6)	28 (5.6)	27 (6.8)	76 (5.2)	275 (7.9)
합계	27	549	497	395	1468	3495

(표 4) 企業主別工事額(單位千圓)<sup>5)</sup>

		1945年	1946年	1947年	合計
企業官公署 其他公共 團體	土木	—	152,187,768	581,352,210	733,539,987
	建築	—	51,702,858	579,949,849	1,113,652,707
	其他	—	108,634,954	128,081,940	236,716,894
	小計	—	776,525,580	1,307,383,999	2,083,909,579
미군부대 관계	土木	2,520	66,004,758	127,273,344	193,280,622
	建築	6,682,270	556,862,672	342,636,539	905,181,481
	기타	4,530,751	176,960,012	100,010,904	281,501,667
	소계	10,215,541	799,827,442	569,920,787	1,379,963,770
민간	土木	59,000	—	9,950,000	10,000,000
	建築	2,955,000	26,430,000	135,347,2??	164,732,208
	기타	1,001,763	2,592,768	17,093,5??	20,688,122
	소계	4,006,763	29,022,768	162,390,???	195,420,33?

시행된 공사에 있어서는 자재를 구하는데 별 무리가 없었다. 조선은행조사부에서 1949년 발행한 경제년감을 보면 해방에서 46년 사이를 토건사업의 황금시대로 분류하고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있다.

“당시는 일제시대 군부에서 다량저축하였던 자재가 일반민간에게 방출되어 토건자재면으로 하등의 지장을 주지않았으며 공작물도 영구적 건물이 근소하고 대개 가설수리 등의 공사가 대부분이었으므로 기술적

견지로 보아도 용이한 공사가 전반이었다. 지금은 기업측인 미군부대가 진주한 직후인 만치 정책상으로 융통성있는 공사지불을 실시하여 하등의 곤란을 받지 않고 공사를 추진 할 수 있었던 것이다.”<sup>6)</sup>

47년에 이르자 일제시기 비축되었던 자재가 바닥을 드러내고 이내 자재난으로 인해 건설경기가 불황을 맞이하게된다. 당시 시멘트의 경우, 남한에서는 그 생산공장이 전무한

실정이었다. 1947년에 이르러 일제시기 비축되었던 자재가 감소하여 그 재고가 바닥에 가까와지자 북한을 상대로 시멘트 브로커들이 상당수 횡횡하게 되었다.<sup>7)</sup> 남한에서 생산되는 토건재료로 일부목재를 제외하고는 근소하나마 삼보양회가 전부이었으나 그나마 그 생산도 수요량의 근소한 양만을 담당할 뿐이었다. 1946년 시멘트의 생산량은 만 여톤에서 48년에는 2만 여톤으로 증가하게 되나<sup>8)</sup> 절대량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다.

## 2. 건축가와 건설자

신축이 거의 없고 그나마 건설경기의 대부분이 미군관련 가설공사이던 40년대 말 서양에서는 이미 근대건축이 기울어가는 조짐을 드러내던 시절이었지만 우리 건축가들의 건축적인 실무여건은 서양의 르네상스에도 못미치는 것이었다. 쉘터로서의 건축을 넘어 건축을 작품으로 대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을 지 모른다. 이러한 상황은 건축가들에게 건축의 일거리가 아니라 건설의 일거리만을 제공하였다.

일제시기 건축물을 설계한 건축가들의 해방 이후의 행적에 너무도 뚜렷이 그러한 흔적이 발견된다. 해방 전에 건축물을 설계하였다고 알려진 한국인 건축가들은 해방 이후 전원이 건설업회사에 몸담게 되었다.(표5)

뿐만 아니라 해방 전에 설계사무소에 소속되었던 건축가들도 설계사무소를 차린 예를 찾아보기 힘들다. 해방전 대표적인 한국인 설계사무소였던 박길룡 사무소의 정식직원이었던 사람들의 해방 후 활동도 건축보다는 건설이나 관공서 쪽에 편중되었다.(표6)

주)

4)조선은행 조사부, 『경제년감』 1949 I-150.

5)조선은행부, 『조선경제년보』, I-380, 조선은행조사부, 『경제년감』, 1949.

이 표는 해방 직후 조직된 조선토건협회 회원들의 실적 만을 합친 것이다. 조선토건협회가 전체 공사의 2/3정도는 담당했으리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미군측에서 양호한 시공업체를 미군시설 건축에 활용하기 위해 조선토건협회에 업체 선정을 의뢰했기 때문이다.

6)조선은행조사부, 『경제년감』, 1949.

7)조선은행조사부, 『경제년감』, 1949. I-78쪽.

8)조선은행조사부, “산업총회”, 1954. 조선은행조사부, “조사월보”, 1951.4.

(표 5) 해방 전 건축가들의 해방 후 소속

해방전 설계실적 있는 건축가	해방후 소속
박 길룡	해방전 사망
김 세연	대창공영회사
박 인준	대륙공영사
박 동진	태평건물회사
강 윤	고려토건회사
김 순하	우일사
김 희춘	대륙공영사
유 원준	신광토건사
장 연채	우신토건사
유 상하	극동공업사

(표 6) 박 길룡 건축사무소 소속인원의 해방후 동향<sup>9)</sup>

	직원	해방후 소속
회 원 명 부	전 창일	조선은행영선과
	오 영섭	오공무소
	김 관정	중외상공사
	임 기화	
	김 봉길	
기 타	이 병문	장백, 협성토건
	윤 정중	
	김 한섭	전남도청영선계장

### 3. 공백 채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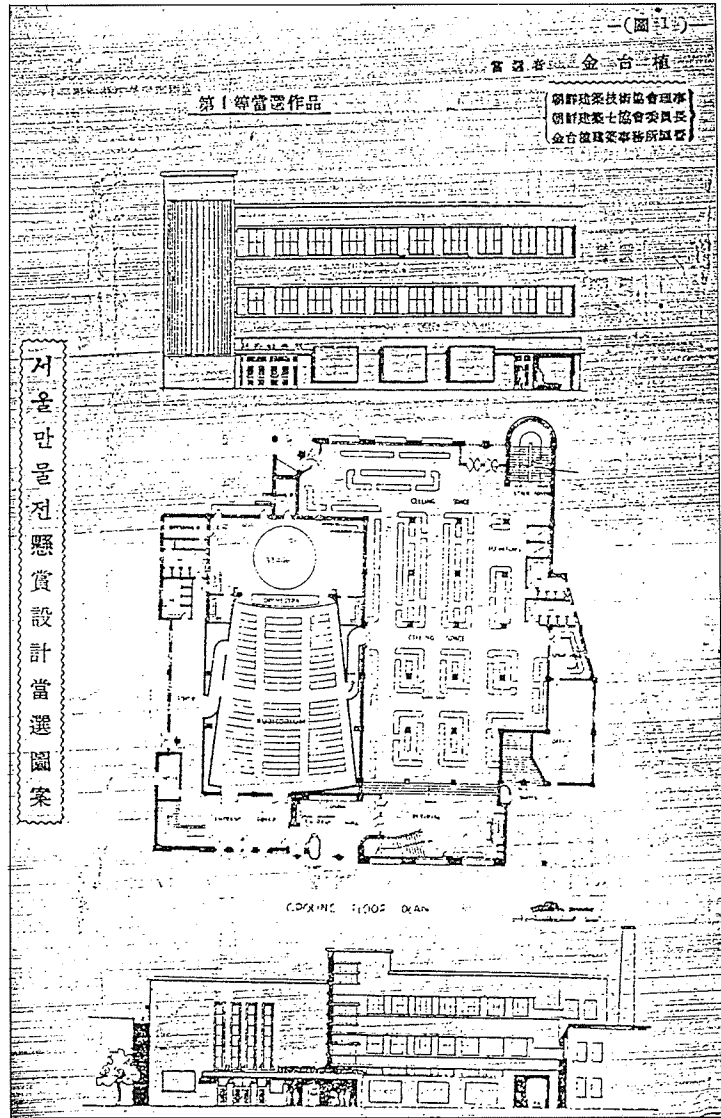
미군관련공사의 폭주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건축에서 건설로 방향전환해야하는 것 말고도 건축가들은 일본인들이 남기고 간 관공서 조직의 공백을 메워야 했다. 일본인들은 철저하게 사회조직의 중요한 부분에서 한국인들을 소외시켰고 해방후 조직은 남겨진채 일본인들만 사라지게 된것이다.

1941년 총독부 설계조직이라 할 수 있는 관방 회계과 영선계의 촉탁이상의 직원 110여명 중 한국인은 불과 7명이였다. 경성고공 졸업자들을 보더라도 1923년부터 1933년까지 총 73명중 한국인은 불과 16명이였다.(표7)

비록 총독부의 설계조직에서만

주)

9) 임기화와 김봉길은 그 행적을 찾을 수가 없다. 오영섭의 경우 오 공무소 소속으로 되어있는데 오 공무소는 해방 전부터 오영섭의 형 오병섭이 운영하던 건설회사였다. 이 외에 박길룡 건축사무소에 정식 직원으로 있던 사람은 김 한섭, 이 병문, 조 병섭, 윤 정중 등이 있었다. 이들 중 조선건축기술단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은 김 한섭과 이 병문인데 이 병문은 동명이인이 있었는데 각각 장백토건회사, 협성토건회사 소속으로 되어있다.



(그림 3) 서울만물전 현상 당선안(김태식)

한국인들이 소외되었던 것은 아니다. 민간건설회사나 설계사무소등에서도 한국인에게는 기회가 없었다.(표8)

해방직후 한국인 건축가의 부족은 근원적인 문제였다. 일제의 부당함 속에서 그나마 건축가로 활동 할 수 있었던 경성고공 출신이 한 해에 2~3명 정도 배출되어 해방당시까지 25년간 60여 명에 지나지 않았다. 그나마 총독부에서 실제로 독자적인 설계업무를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기수에 해당하는 사람들로 이들은

손꼽을 정도의 숫자였다. 해방 당시 건축관련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은 10인 이내였고 거의 모두가 일본에서 유학한 사람들이였다. 기타 국내의 건축교육기관은 공업학교와 직업학교 정도가 있을 뿐이였다. 해방 후 52년까지는 48년 동아공과대학의 후신으로 설립된 한양대와 46년 경성고공의 후신으로 설립된 서울대를 제외하고는 대학의 건축과가 없었다.

따라서 해방후 일본인들이 남기고 간 공백과 건설수요를 담당하기에는 전반적으로 건축인의 숫자가

(표 7) 해방 당시 총독부 및 소속관서 관리의 민족별 구성비<sup>10)</sup>

등 급	일본인	한국인	합계
1등급(친입관, 책입관)	2	4	6
2등급(주입관)	143(82.2)	31(17.8)	174
3등급(관입관)	3848(86.0)	624(14.0)	4472
4등급(촉탁, 고원)	46664(61.8)	28891(38.2)	75555
합 계	50657(63.2)	29550(36.8)	80207

(단위: %)

(표 8) 해방 전 건축기술자의 주요 근무지별 분포(일본인/한국인)<sup>11)</sup>

관공서	민간건설회사	교육관계
총독부 철도국 34/2	청수조정성지점 11/	경성고등공업학교 3/1
총독부 회계과 19/6	간조 경성지점 9/	경성상공학교 1/
총독부 채신국 9/	서송조 3/	소화공과학교 2/
경성부청 9/2	대립조 1/	경성공업학교 2/
경기도 경찰국 5/	대창토목 4/	대동공업전문학교 1/
경기도 회계과 3/	북선철도사무소 3/	기타 학교 2/
군관계 기관 22/		
계 101/10	31/	11/1

부족하였다. 또한 미군공사의 폭주로 인한 건설 수요와 신축의 부재라는 상황은 건축가들이 설계만을 주업무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지 못했다. 이 시기는 일제시기 활동을 하던 건축가들 뿐 아니라 고공이나 공업학교, 직업학교를 갓 졸업한 사람도 중요한 직책을 맡으며 활동할 수 밖에 없었다. 45년 해방 당시 최고 원로 건축가는

박인준(1892~1974)으로 53세였고 그 다음은 김 세연(1897~1975)으로 48세였다. 이 천승(1910~1992)의 나이는 35세였다.

김한섭(1920~1990)이 46년 전남도청 영선계장을 지낸 나이가 27세였고 김정수(1919~1985)가 미군정 건축서 과장이던 나이가 불과 26세였다.

다음의 표9는 朝鮮建築技術協會 1947년 10월의 會員 618명에 대한 직업을 분류한 것이다.

618명이라는 숫자는 교육기관이나 해방 전 건축관련 학교 졸업생의

숫자를 생각할 때 매우 많은 것이다. 건축계 전반에 걸쳐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선건축기술협회 회원으로 가입했다고 봐도 무방 할 것이다. 이 중 관청의 설계조직에 있던 사람들은 239명이었다. 건설회사 소속이 189명이었고 관공서와 건설회사 소속인원을 합하면 428명으로 전체의 70%정도에 해당한다. 건축관계인 대부분이 관청이나 건설회사에 속한 것은 이 시기의 사회경제적 여건상 불가피한 것이었다. 이 시기 중에 건축가들이 소속되었던 관청의 설계조직은 도청 영선계, 시청 영선계, 남조선 과도정부 영선계, 미군정 운수부, 주택영단 등이었다.

#### 4. 관공서 실무조직

일제시기 관의 대표적인 설계조직은 총독부 관방 회계과였다. 여기서 철도와 채신 등의 업무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관청 관계의 신축건물을 설계하였다. 물론 각 도청이나 부청의

(표 9) 조선건축기술협회 회원의 소속

소 속	인원수	
관청 시.도.군영선계 45	239명,	
남조선과도정부 24		
운수부, 철도 113		
조선주택영단 12		
채신부 6		
수도관구경찰청 8		
전매국 18		
기타 13		
기관 조선은행 3		19명
조선산업 1		
조선전업 9		
조선주조 1		
조선직물 2		
조흥은행 3		
建設會社, 工務所, 土建會社, 土木建築請負	189명	
미상	73명	
학생 서울대 35	57명	
한양대 21		
연세대 1		
설계사무소/소자영 14	28명	
국제 6		
신건축 1		
신흥 2		
중앙 5		
교직	10명	
기타(建築이외)	3명	

영선계에서 청사를 설계하는 일도 있었다. 해방후 관청의 설계조직은 각 부서별로 나뉘어지게 되었다. 가장 신축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부서는 운수부였으며 따라서 조선건축기술협회 회원 중 상당 수가 운수부 소속으로 되어있었다.<sup>12)</sup>

45년 해방을 맞아 미군이 진주할 때 종래 경시되던 운수부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운수부를 신설하였다. 46년 3월 미군정 법령 제 64조에 의해 신설된 운수부는 철도, 해상, 항공, 공공도로의 4운수국을 포함하고 있었다.<sup>1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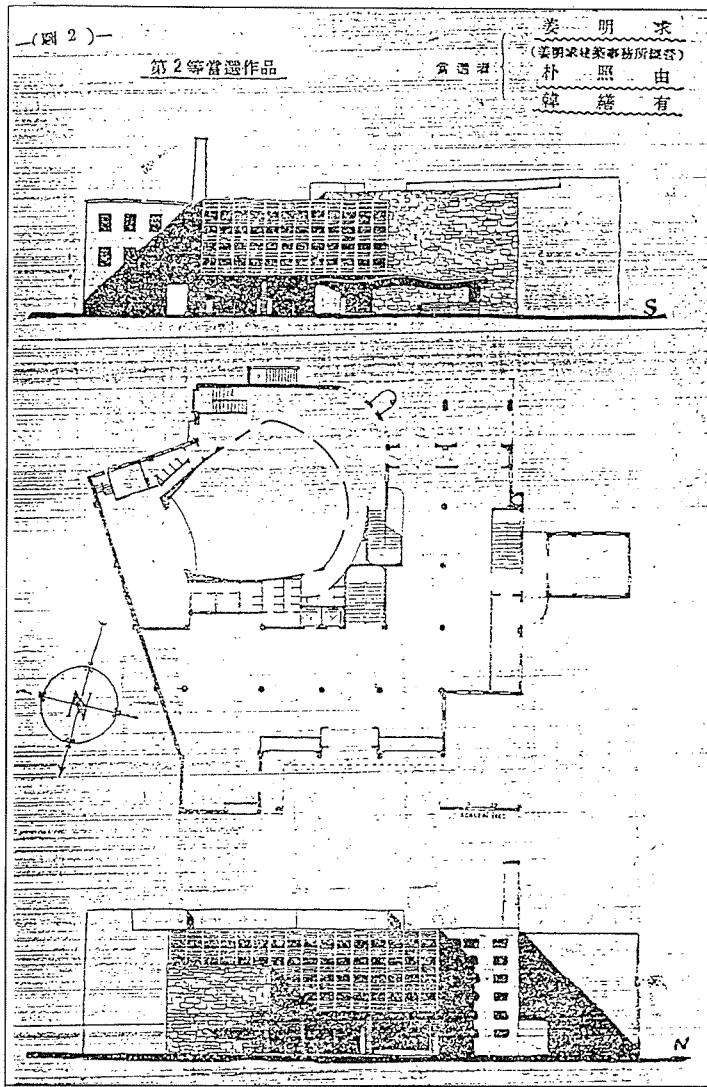
주)

10) HUSAMGIK, PART 1, p.32, 안 진, 『미군정기 국가기구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논

11) 조선기술가명부의 건축관련 기술자들의 명단을 도표화 한것임. : 박 훈영, 『1910년부터 1945년까지 한국에서활동한 일본인 건축가의 활동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논, 1992, 34쪽

12) 상세한 자료는 필자 학위논문, “한국근대건축의 발전과정에 관한 연구”, (1993 서울대) 81-82쪽 참고.

13) 朝鮮通信社, 『朝鮮年監』, 1948年版, 390쪽.



(그림 4) 서울만물전 현상2등안(강명구 외)

철도에 편중된 교통을 평중하게 종합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운수부 최대의 과제였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였고 운수부에서 행한 사업의 대부분은 건설사업이었다. 교량, 병원, 간호기숙사, 아파트를 신축하거나 기존의 건물에 스팀장치를 하거나 항만시설의 개선 등이 운수부에서 행한 사업이었다. 약간의 아파트와 기숙사, 부산의 공장시설 일부, 그리고 提川 豊基間의 전화공사의 준공이 있었다.<sup>14)</sup>

1947년 6월 20일 발행의 조선건축지에는 동년 3월

조선건축기술단, 조선토건협회, 조선건축사협회 각 회장의 명의로 건축행정기구재편성에 대한 건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기록하고있다. 이는 설계조직이 여러부서에 나뉘어 있으므로 해서 생겨나는 여러가지 불합리한 면을 개정코자 함이었다. 당시 군정조직내에는 내무부가 없었고 새로 개정될 정부조직에 내무부가 신설될 예정이었다. 이 내무부 산하에 건축국을 두어 건축에 관계되는 업무를 일괄적으로 처리하자는 건의 내용이 골자였다. 단 운수부의 건축관련부서는 제외되었다. 건의 내용으로 알 수 있는

당시의 관청 설계 업무는 (1)서무처 건축서 소관으로 일반건축사업 (2)각 부처의 영선사무 (3)주택행정처의 사무 (4)경우부의 도시건축물 및 건축공사감독사무 (5)상무부의 공장건설 및 보수공사사무 등이었다.<sup>15)</sup>

다음의 표10은 해방 전 관청 소속인원의 해방후 동향을 보여주는 것이다.

총독부에 속했던 한국인들은 대부분 건설회사로 간 것을 알 수 있다. 이 용재와 이 계년 만이 과도정부소속으로 남았다. 해방후는 해방전의 관방 회계과 영선계에 해당하는 설계조직이 유지되지 않았다. 관방 회계과는 철도와 체신을 제외한 거의 모든 관공서 건물의 설계를 담당한 반면 해방후는 각 부서별로 설계조직이 분산되었기 때문에 관방 회계과 영선계의 조직은 이어질 수가 없었다. 그러나 해방전 철도국 소속의 건축가들은 전원이 운수부로 이어지고 있다.<sup>16)</sup> 운수부가 설계나 건축관련 업무를 주업무로 하지는 않았지만 당시 장 활발한 건설사업을 펼쳤고 따라서 철도국소속의 인원은 그대로 운수부로 이어졌다.(표11, 12)

## 5. 건축실무

신축이 거의 없었고 있다하더라도 미군관련공사나 급히 건설을 요하는 건축물이 전부이던 이 시기의 민간 설계사무소는 존립하기가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몇몇의 설계사무소를 발견할 수가 있다. 표13은 조선건축지의 회원명부 중에 설계사무소에 있던 사람들을 정리한 것이다.

해방 전에 개설된 박 길룡과 박 인준의 설계사무소는 해방 이후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이 시기에

주)

14) 앞의 인용., 392쪽.

15) 『조선건축』, 1권 2집, 부5쪽.

16) 운수부에 철도국이 있었다.

(표 10)해방전후 관청 건축가<sup>17)</sup>

해방전	해방후
기도청영선계	서울시청영선과
성부공영부영선계	신한공업회사
성부도시계획과 제2기술계	수도경찰청보안과건축계
성부도시계획과 제2기술계	남익사
도국 경성건축구	철도운수국공무과건축계
도국개량과 건축계	부산 철도사무소 건축과
도국공무과	철도국공무과 건축계
도국공무과건축계	운수부공무청
도국대전 건축구	경성철도사무소 건축과
년경성철도사무소건축계로	경성철도사무소 건축과
독부관방회계과영선계	남조선과정건축서
독부관방회계과영선계	신광토건사
독부내무국건축과	대창공영회사
독부내무국건축과	서울공대건축과교수
독부내무국건축과	우신토건사
독부내무국건축과	조선주택영단
독부내무국건축과	태평건물회사
독부영선계후회계과영선계	대륙공영사
독부관방회계과	통위부건축과
독부회계과영선계	남조선과정사범부영선계
독부회계과영선계, 청평사	포스트엔지니어
청북도회계과	대동건설회사
해도청 회계과	응용공영회사

생겨난 국제, 중앙, 신흥, 신건축사무소 등도 6.25 이후로 연결이 되고 있지 않다. 해방과 더불어 불안정한 사회경제적인 상황은 한국인 건축가들이 설계를 주 업으로 활동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였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조직된 설계사무소들도 6.25 전쟁으로 인해 그 명맥이 끊어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시기에 설계된 건축물을 찾기는 쉽지 않다. 신축이 거의 없었을 뿐 아니라 신축된 건물을 소개할 잡지도 “조선건축”지가 유일한 것이었다.(표14)

그렇지만 몇몇 현상설계를 통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 건축가들의 이상을 발견할 수 있다. 1945년 11월 실시하여 익년 2월에 마감한 국민주택현상과 1948년 신년호 ‘조선건축’지에 소개된 서울만물전 현상설계가 그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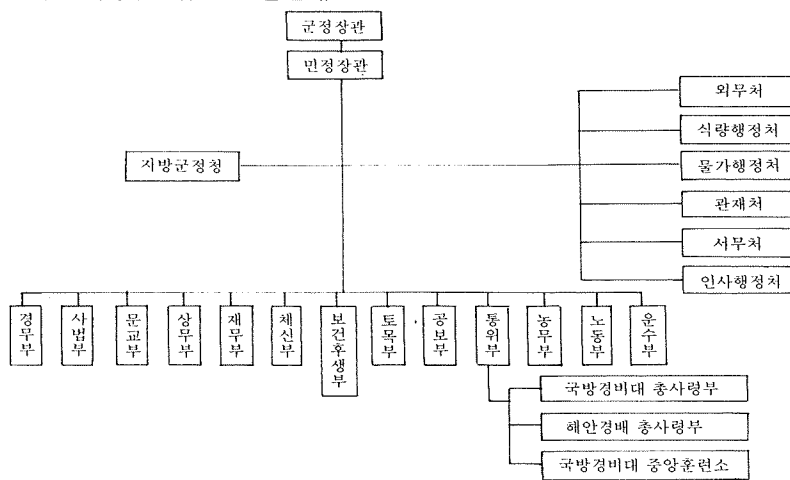
국민주택현상설계 참여자들의 당시 연령은 거의 전부가 20대였으며 심사위원은 35~53세였다. 당선안은 일부 수정을 통하여 주택행정처에 의해 실제공급되었다.<sup>20)</sup>

해방직후 주택부족문제가 급선무였고 이의 해결을 위한 현상설계에 건축가들의 능동적인 참여가 돋보인 것이었다.(그림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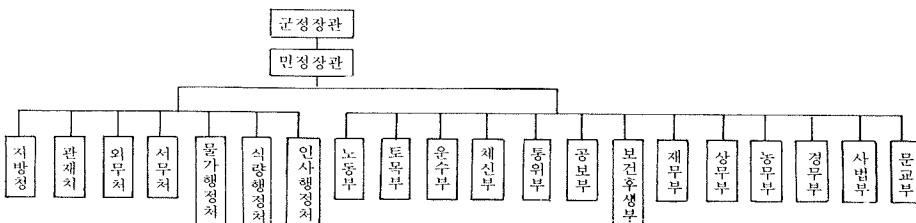
서울만물전 현상설계의 경우 일본 유학출신들의 당선이 두드러졌다. 입상자가 김 태식(당선) 강 명구, 박 희유, 한 성유(2등), 성 낙천, 이 희태(3등 1석), 오 영섭(3등 2석) 등인데 강명구는 조도전, 김 태식, 성 낙천, 오 영섭은 모두 일본대학 유학출신이었다.(그림3, 4, 5)

40년대 가장 화려한 실무활동을 한 건축가는 김 태식일 것이다. 김 태식은 해방과 동시에 설계사무소를 차렸으며

(표 11)미군정의 중앙조직(1947년 7월 현재)<sup>18)</sup>



(표 12) 남조선과도정부 행정기구<sup>19)</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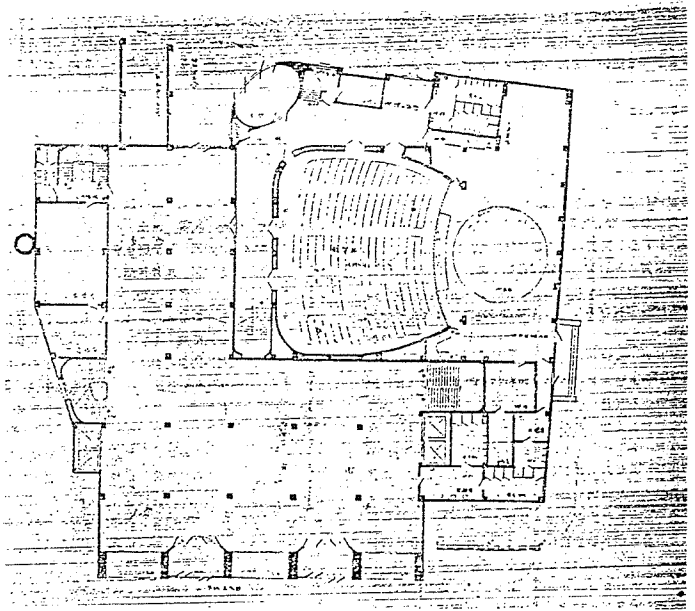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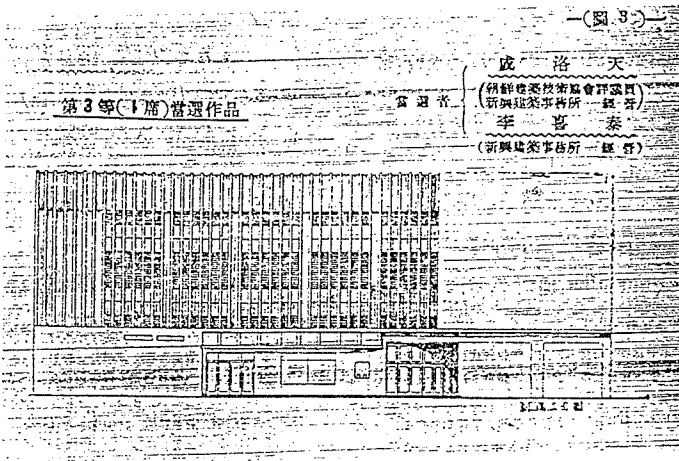


주) —————

17)조선건축회 회원가입시 소속과 조선건축기술협회 회원명부의 소속을 비교한 것. 표에 나타나는 해방전 한국인 건축가들의 소속이 내무국 또는 관방 회계과로 혼잡되어 있는 것은 조선건축회 가입당시의 소속을 그대로 적었기 때문이다.

18)조선통신사, 『조선연감』 1947, 48년판.

19)조선통신사, 『조선연감』 1947.



(그림 5) 서울만물전 현상 당선안(성낙천, 이희태)

(표 13) 45년에서 53년 사이의 민간설계사무소

설계사무소명	소속인원
국제건축사무소	강 덕모, 이 민호, 박 학재, 순 증모, 최 영선, 최 은희
중앙건축사무소	신 현길, 신 현대, 김 돈동, 이 문복, 최 명성
신흥건축사무소	이 희태, 성 낙천
신건축설계사	김 성근
건축사무소자영	김 상희, 강 봉진, 모 반현, 김 태식, 김 중희, 김 동진 김 흥배, 신 태산, 심 의권, 윤 중규, 정 은용, 정 우섭 홍 순오, 박 소유

왕성한 활동을 하였다. 김 태식은 미군 장교와의 인연으로 46년 미군공사를 맡게 되는데 미군관련 공사의 경험으로 미군관련 자재와 서류양식에 익숙하게 되었다. 학교신축은 원조자금에 의해서 서류양식을 영문으로 꾸미고 자재도 원조에 의한 것을 사용하여야 했는데 이면에서 김 태식은 누구보다 앞서 경험하였기 때문에 많은 설계를 따낼 수 있었다.<sup>21)</sup> (표15)

(표 14)조선건축지에 소개된 신축건물

공년	건물명	위치	설계담당	구조
18. 5	연백공립여자중학교		경기도회계과영선계	
16. 8	시흥군구청사		경기도회계과영선계	조적 2층
18. 5	종로구청사	종로2가	서울시공영국영선계	조적 2층
18.10	종로국민학교		서울시공영국영선계	조적 2층
17. 3	성북 경찰서	돈암동 253번지	수도관구경찰청건축과	조적 2층
17.10	동도극장	돈암동대로 동측	오 영섭	조적
18. 3	운수부 용산관사		운수부	
17. 5	용산제3아파트	한강로3가	운수부	조적 2층
17. 6	용산모터풀	한강로3가	운수부	조적 단층

(표 15)해방후 52년까지 김태식의 작품<sup>22)</sup>

년도	건물명	구조
1945. 11	조선도서주식육장	철근콘크리트조
1950. 1	성신여자중학교 교사증축 연와조3층외지붕	조적조 3층
1946. 2	강당겸 식당, 진료소 및 연와조기와	조적조
1946. 9	미 제7사단 사령부 난방시설	
1948. 6	동덕학원 교사신축 연와조 3층 외지붕	조적조 3층
1946. 2	기술중업원 숙소,	
1946. 2	미군309폭격부대 김포비행장	조적조
1946. 7	K.E.C.D 장교구락부 및 식당신축	조적조 평지붕 와이음
1950. 3	숙명여자중학교, 특별교실(3층강당)신축	철근콘크리트 합석지붕
1951. 9	한국상업은행부산북구지점	조적식
1951.12	안양보육원사	조적식

주)

20)이영한, '1945-36년도 국민주택현상안의 전통적 공간구성특성에 관한 연구', "무에이광노교수 정년퇴임기념 건축학논총", 379-399쪽.

21)안창모, 송 울, 류전희, 「김태식과의 대담」(필자 학위논문 중)

22)김태식 개인소장 작품이력